

유아 행복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Happiness

이효숙*, 조준수**

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한려대학교 간호학과**

Hyo-Sook Yi(hsook@ghu.ac.kr)*, Jun-Soo Cho(binzo99@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전라남도 K광역시 유아교육기관 6,7 세 유아를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6, 7세 유아들은 행복에 대한 인식을 자아특성 중 사랑하는 것과 좋은 것과 같은 긍정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7세 유아들은 자아 특성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대인관계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6, 7세 유아들은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한 인식을 인지 영역 중 놀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대인관계의 가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6세 유아에 비해 7세 유아들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긍정 정서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6, 7세 유아의 인식은 대인관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가족관계와 친구와 사이좋게 놀기와 같은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7세 유아는 인지 영역 중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6세 유아는 목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자아 특성은 긍정 정서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로써 유아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긍정 정서가 가장 중요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대인관계와 또래와 놀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7세 유아들은 6세 유아에 비해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아 행복을 위한 긍정 정서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또한 7세 유아들은 위해 목표 설정을 통한 유아 진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중심어 : | 유아 | 행복 | 유아행복 |

Abstract

The purpose for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erception of happiness among the kindergarten you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kindergarten young children of 6, 7 years old in Kwangju.

The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kindergarten young children of 6, 7 years old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happiness to have a positive mind, to be loved. And kindergarten young children of 7 years old perceived spend time with family as happiness.
2. 'the most moment when you feel happy' perceived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happiness were to be loved, play with children and to spend time with children.
3. 'To be happy' perceived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happiness were th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friends. Especially, seven years old children perceived to be able to do self-development.

Therefore, I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study a program of young children's happiness, a program of parent's participation for young children's happiness in kindergarten, and a program of young children' career education.

■ keyword : | Young Children | Happiness | Happy Young Children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행복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의 양적인 성장을 중시했던 결과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를 중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은 행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 이러한 관심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근간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에 대한 결과로 인해 더욱 행복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34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3순위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자살률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리 나라 아동과 청소년이 경우,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행복교육에 대한 각성과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아기는 모든 발달에 있어서 생의 초기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전인발달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삶의 행복에 있어서도 유아기의 행복감은 후기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3]높은 행복감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확률도 높다고 한다. 즉, 행복은 학력, 부, 명예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수록 높아진다.

아이들을 위한 행복교육은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 즐겁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4]유아기의 행복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생의 초기인 유아기의 행복교육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유아기는 성격 발달의 토대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유아기의 긍정적 성격 형성, 정서, 부모와의 애착, 가족, 또래와의 바립직한 관계 그리고 놀이와 같은 일상 경험

에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행복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5].

근간 유아기 행복에 대한 연구는 유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유아행복감 측정 도구에 대한 연구,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 중 유아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행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유아 행복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들이 인식한 행복은 어떻게 나타나는 가?
- 둘째, 유아들이 인식한 가장 행복할 때(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 가?
- 셋째, 유아들이 인식한 행복하려면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어린이집의 연구 대상은 전남 K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6, 7세 유아들이다. 연구 대상은 K시에 위치한 중류층이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으로 무선표집하였다. 3곳의 유치원과 3어린이집의 남아63명과 여아 57명이었다.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강영옥[6]과 한혜진[5]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여 유아교육 1인, 현장 교사 1인, 상담교사 1인의 자문과 내용타당도를 거쳐 최종 구성되었다. 유아 행복 설문지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설문 문항은 첫째,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둘째,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무엇을 할 때)일까? 셋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다. 각 문항에 1-2개의 답변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자 2인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각 문항은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자가 유아를 한명씩 면담하여 유아의 답변을 받아 적어 기록하였다. 유아 한명 당 걸리는 시간은 약 10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120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하고 90부를 자료 처리하였다. 본 설문지는 개방형 설문지로 구성되었기에 연구 대상의 설문지 답변을 분류-유목화 하여 행복 요인 영역 요소로 범주화하였고, 각 영역별 구성요인을 분류-유목화-통합-유목화의 과정을 거쳐 빈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 분석 기준은 강영욱[6] 최윤정[7], 그리고 한혜진[5]이 분류기준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기준은 자아특성, 대인관계, 인지 영역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고, 각 범주는 자아영역은 긍정적 정서와 사회도덕영역으로, 대인관계는 가족, 교사, 또래 영역으로, 그리고 인지 영역은 목표, 교육, 활동, 기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유아 행복 분석 기준

범 주	자아 특성	대인 관계	인지 영역
하위영역	긍정 정서	가족	목표
	사회 도덕	교사	교육
		또래	활동
			기타

III. 연구 결과

1. 행복에 대한 유아의 인식

행복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행복에 대한 인식을 대부분의 6세 유아들은 자아특성(76.6%) 중 긍정 정서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6세 유아들은 사랑하는 것과 좋은 것과 같은 긍정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7세 유아들은 과반수 이상이 자아 특성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였고(55.6%), 다음으로 대인관계응답하였다(31.3%). 자아 특성은 좋은 것과 같은 긍정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대인관계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2. 행복에 대한 유아의 인식 (f)

연령 6 세		범주	연령 7 세	
내용	항목		항목	내용
걱정이 없는 것(1) 좋은 것(21) 기쁜 것(6) 사랑하는 것(34) 웃는 것(7) 행복한 것(10)	긍정 정서 (79)	자아 특성	긍정 정서 (60)	걱정이 없는 것(2) 사랑하는 것(15) 좋은 것(26) 웃을 때(5) 행복할 때(5) 기쁜 것(7)
고마운 것(1)	사회 도덕 (1)		사회 도덕 (4)	칭찬(2) 경청(2)
(80)			(64)	
화목한 것(6) 엄마가 뭐 사줄 때(1)	가족 (7)	대인 관계	가족 (34)	가족과 함께(34)
	교사		교사	
친구랑 사이좋게(5)	또래 (5)		또래 (2)	사이좋게(1) 친구와 함께(1)
	(12)		(34)	
	목표	인지 영역	목표 (1)	꿈을 이루는 것(1)
뭘든지 시켜주는 것(1)	교육 (1)		교육 (2)	유치원 가기(2)
소풍가는 것(6) 놀 때(4)	활동 (10)		활동 (9)	소풍가는 것(6) 놀 때(2) 생일(1)
	기타 (11)		기타 (3)	선물(3)
	(103)	전체	(113)	

2.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한 유아의 인식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한 인식은 과반수 이상의 6세 유아들이 인지 영역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58.1%), 다음으로 대인관계응답하였다(32.7%). 인지영역의 하위영역으로는 활동 중 놀 때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대인관계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7세 유아들은 인지 영역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5.9%), 다음으로 자아 특성(33.3%), 대인관계(20.7%)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영역은 활동 중 놀 때가 가장 많았고, 자아 특성은 긍정 정

서가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대인관계는 가족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6, 7세 유아들은 인지 영역 중 놀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대인관계의 가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6세 유아에 비해 7세 유아들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긍정 정서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3.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한 유아의 인식 (f)

연령 6 세		범주	연령 7 세	
내용	항목		항목	내용
기분 좋을 때(2) 화를 안낼 때(1) 행복할 때(1)	긍정 정서 (7)	자아 특성	긍정 정서 (51)	걱정이 없는 것(1) 좋은 것(3) 기쁜 것(6) 사랑하는 것(34) 웃는 것(7) 행복한 것(10)
칭찬(2) 뽀뽀(2)	사회 도덕 (4)		사회 도덕 (2)	칭찬(2)
(11)		(53)		
가족과 함께(34)	가족 (34)	대인 관계	가족 (27)	화목한 것(22) 부모가 뭐 사줄 때(5)
	교사		교사 (1)	선생님이 있을 때(1)
친구 사이좋게(6)	또래 (6)		또래 (5)	친구랑 사이좋게(5)
(40)		(33)		
	목표	인지 영역	목표 (4)	달리기 1등(4)
유치원 갈때(3) 공부(3) 책(2)	교육 (8)		교육 (7)	유치원 갈 때(3) 공부(2) 받아쓰기(2) 책(2)
소풍(6) 놀 때(24) tv볼 때(6) 장난감(7) 눈 올 때(1) 크리스마스(10)	활동 (54)		활동 (45)	놀 때(7), 썰매(4) 눈싸움(2), 장난감(2) TV(5) 소풍(14), 생일(1), 운동회(1) 크리스마스(2) 밥(1)
주말에 쉬는 것(5) 집에 갈때(3) 내일(1)	기타 (9)		기타 (17)	선물(7) 이새(1) 매일(1) 날씨(1) 설 때(1), 편할 때(1) 집에 갈때(2) 주말(3)
(71)		(73)		
(122) 전체		(159)		

3. '행복하려면'에 대한 유아의 인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에 대한 6세 유아의 인식은 과반수 이상 대인관계를 가장 많

이 응답하였고(58.8%), 다음으로 자아특성으로 응답하였다(24.2%). 대인관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가족과 친구와 사이좋게 놀기인 또래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자아 특성은 긍정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7세 유아들은 대인관계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6.6%), 다음으로 인지 영역(25.8%)과 자아 특성(28.8%)으로 응답하였다. 대인관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가족관계와 친구와 사이좋게 놀기와 같은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6세 유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7세 유아가 인지 영역 중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장 중요하 인식하였지만, 6세 유아는 목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자아 특성을 긍정 정서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4. 행복하려면에 대한 유아의 인식 (f)

연령 6 세		범주	연령 7 세	
내용	항목		항목	내용
행복할 때(2) 사랑할 때(6) 웃을 때(2) 즐거게(2)	긍정 정서 (12)	자아 특성	긍정 정서 (13)	걱정이 없는 것(1) 좋은 것(2) 기쁜 것(1) 사랑하는 것(3) 웃는 것(2) 행복한 것(4)
물건 아껴쓸때(2) 질서(3) 양보와 배려(7) 경청(2)	사회 도덕 (14)		사회 도덕 (10)	질서(3) 칭찬(3) 양보(2) 함께 하기(2)
(26)		(23)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26) 화목(4) 아빠를 안아주기(2)	가족 (32)	대인 관계	가족 (17)	부모님 말씀 잘 듣기 (17)
	교사		교사	
친구와 사이좋게(31)	또래 (31)		또래 (24)	친구랑 사이좋게(24)
(62)		(41)		
열심히 한때(2)	목표 (2)	인지 영역	목표 (11)	공부를 열심히(7) 돈 많이 벌기(2) 노력(2)
공부(3)책(2)	교육 (5)		교육 (3)	유치원 가기(3)
놀 때(4)썰매(1) 교구활동(1)	활동 (6)		활동 (9)	놀 때(3) 썰매(1) 수영장(1) 눈 놀이(2) 크리스마스(1) 생일(1)
기도(4) 선물(1)	기타 (5)		기타 (2)	기도(1), 선물(1)
(18)		(25)		
(106) 전체		(89)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 7세 유아들은 행복에 대한 인식을 자아특성 중 사랑하는 것과 좋은 것과 같은 긍정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7세 유아들은 자아 특성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대인관계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행복에 대한 요인으로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은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긍정적 정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Ben-Shahar, 2007; Seligman, 2006),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긍정적 경험은 주관적 행복요인이라는 점에서 인간 삶의 행복감을 증진해준다[10]. 행복한 유아도 긍정적 사고를 할수록 행복감이 높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유아일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5].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감이 크다고 한다. 이는 유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유아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취하는 기쁨과 즐거운 경험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행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 6, 7세 유아들은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한 인식을 인지 영역 중 놀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대인관계의 가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6세 유아에 비해 7세 유아들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긍정 정서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에게 있어서 놀이 활동과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해주는 결과이다. 놀이는 유아들의 생활 그 자체이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 정서의 바탕이며[11], 놀이를 할 때 가장 즐겁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2]. 유아 행복 요인으로 부모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 부모와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유아의 건전한 인성을 기르는 데 밑바탕이 되

며,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13]. 또한 부모가 행복할수록 그들의 자녀인 유아도 행복할 것이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를 위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과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6, 7세 유아의 인식은 대인관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가족관계와 친구와 사이좋게 놀기와 같은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7세 유아가 인지 영역 중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6세 유아는 목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도 유아의 행복 요인에 부모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며, 또래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와의 관계로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또래의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한혜진(2014)도 대인관계에서 유아들은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를 행복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6세 유아보다는 7세 유아들이 인지 영역중 목표를 행복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시기 유아들은 주도적인 성향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유아기의 주도성은 자신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발달적 성향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활동의 목표를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경험을 주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자신에 일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몰입감을 경험함으로써 유아의 생활과 삶에 대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14].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감이 높다고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고, 이를 만족스럽게 해 나갈 때 행복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행복 교육은 유아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 이에 유아기 행복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1] 황혜익,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 효능감 관계에서 직부만족도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157-180, 2013.
- [2] 매일경제, 한국 아동 행복감 최저 이어 외모-학업 성적 만족감 최저, 왜?, 2014.
- [3]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행복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월드 김영사, 2012.
- [4] 문용린, *문용린의 행복교육*, 서울 : 리더스북스, 2014.
- [5] 한혜진, *유아 행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6] 강영옥, “유아 행복감과 행복개념에 대한 인식,” 한영논집, 제13권, pp.451-477, 2009.
- [7] 최윤정, *유아교사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8] T. Ben-Shahar,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NY : McGraw-Hill, 2007.
- [9] M. P. Seligman, *플로르쉬: 웰빙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우문식, 윤상운 역)*, 경기 도서출판 풀무래, 2006.
- [10] 권석만, *긍정 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2011.
- [11] 지성애, *유아놀이 지도*, 서울: 정민사, 2007.
- [12] 이효숙, 김미선, 조준수, “유아교사와 유아행복에 대한 인식,” The 14th PCERA Anninal conference in seoul, Korea, 2013.
- [13] 박찬옥, 서동민, 엄은나, *유아사회교육*, 서울 : 정민사, 2013.
- [14] 이효숙,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식*, 미간행, 2015.

저자 소개

이 효 숙(Hyo-Sook Yi)

정희원



- 1990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인문학사)
- 1992년 8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인문석사)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인문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 유아음악, 문학, 유아행복 콘텐츠 개발

조 준 수(Jun-Soo Cho)

정희원



- 1987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인문학사)
- 1990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인문석사)
- 1995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인문박사)

▪ 2007년 ~ 현재 : 한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학, 교육심리, 보건학, 행복